

세명은 귀국 보따리 싣는다

허정무호 내일 벨라루스 평가전서 '23인의 전사' 확정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출전 여부가 걸린 마지막 시험무대'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30일(한국시각) 밤 10시 오스트리아 쿠퍼슈타인 스타디움에서 유럽의 '북빙' 벨라루스와 친선경기를 벌인다. 국내과들에게 남아공 월드컵 출전 여부가 걸린 최종 시험무대다.

허 감독은 남아공행을 예약한 12명의 해외파를 제외한 국내과 선수들을 중용할 방침이다.

허정무 감독은 "A매치로 인정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는 마지막 시험무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친선경기에서 교체 가능한 인원이 6명이지만 이를 초과해 최대한 많은 선수를 시험한다는 복안이다.

허 감독은 벨라루스와 평가전 활약 등을 보고 31일 코칭스태프 회의를 거쳐 최종 엔트리 23명을 확정한다.

벨라루스는 남아공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만만찮은 실력을 보유한 팀이다. FIFA 랭킹 82위로 한국(47위)보다 35위나 낮지만 월드컵 유럽예선 6조에서 잉글랜드와 우크라이나

나, 크로아티아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한국과는 그동안 한 차례도 맞붙은 적이 없다.

공격진은 간판 골잡이 박주영(AS 모나코)과 '인발 달인' 염기훈(수원),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이근호(이와타), 신에 3총사 중 한 명인 이승철(FC서울)이 눈도장을 받으려 준비하고 있다. 허 감독은 부상으로 재활 중인 이동국(전북)은 출전 엔트리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명단 합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이승철이 기량을 검증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드필더진은 좌우 날개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청용(볼로냐), 중앙에서 기성용(셀타), 김경우(광주 상무)가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허 감독은 특히 경쟁이 치열한 중앙에서 김재성·신형민(이상 포항), 구자철(제주)이 테스트를 받는다.

허 감독은 왼쪽 측면 자원인 김보경(오이타과)과 중앙 미드필더 한 자리를 노리는 신형민, 구자철을 먼저 실험하고 오른쪽 날개를 받치는 김재성에게도 기대를 걸고 있다.

수비진은 중앙수비수 조용형(제

주)을 주축으로 좌우 풀백으로 이영표(알 힐탈), 차두리(프라이부르크)로 굳어져 가는 분위기다. 이번 경기에선 그동안 출장이 많지 않았던 중앙수비수 김형일(포항)이 먼저 출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국에 맞서는 벨라루스는 간판 미드필더 알렉산드르 흘렙(슈트트가르트)과 공격의 핵심 티모페이 칼라체프 등 주축 선수들이 출전자 명단에서 빠졌다. /연합뉴스

월드컵 단독중계 관련 MBC도 SBS 고소

MBC는 남아공 월드컵과 2012년 런던올림픽 등을 단독 중계기로 한 SBS 윤세영 회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고소했다.

MBC는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 피해와 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 유형·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8일 새벽(한국시각)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트 캄프 훈련구장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훈련에서 '쌍용' 기성용(오른쪽)과 이청용이 공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엔트리 빠자니 아깝고 볼자니 활약 장담 못하고 이동국을 어찌 할꼬...

허정무감독 딜레마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월드컵을 보름여 앞두고 이동국(31·전북) 카드의 활용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6일 에콰도르와 평가전 때 허 감독이 부상당한 이동국을 3주 진단을 받은 이동국에게는 '계류' 신세다.

공격진의 주축임에도 부상 여파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어서 최종 엔트리에 넣을지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허 감독은 그러잖아도 이동국을 전지훈련에 동행시킬 때부터 비관을 감수했다. 월드컵에서 확실하게 필드를 뚫을 선수를 굳이 데려가야 하나를 둘러싼 '이동국 활용' 효용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동국 카드에 강한 집착을 보였던 허 감독은 오는 2일 최종 명단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동국을 최종 엔트리에 올렸다가 월드컵 무대에서 쓰지 못한다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최종 명단에서 제외하자니 전지훈련까지 데려온 게 아까울 수밖에 없다.

허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이동국을 최종 엔트리에 올렸다가 여의치 않으면 부상을 이유로 예비 명



단에 든 선수와 맞바꾸는 방법이다.

그러나 여전히 재활중인 이동국이 엔트리 확정 전까지 최상의 몸 상태로 끌어올릴지 미

지수다. 이동국은 2006년 독일 월드컵 직전 심자시대 과열 탓에 대표로 발탁되지 못했던 아픈 사연까지 가지고 있다.

허 감독은 이동국 차출 여부를 둘러싼 결단을 준비하고 있다. 동정론에 편승했다가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 목표로 걸림돌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다. "대한민국 팀 전체가 어느 한 선수에게 몰리는 것은 아니다"며 이동국에 대한 과도한 관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허 감독은 "경기장에서 뭘 수 있는 선수가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미련을 둔다면 팀이 안된다"고 결단을 암시했다.

'비운의 프리킥'을 달고 다녔던 이동국이 기자회견하며 12년 만의 월드컵 본선 출전 꿈을 이룰지 아니면 최종 엔트리 탈락으로 월드컵 악연을 재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유창식 등 광주·전남 출신 6명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 대표팀 발탁

광주일고의 괴물투수 유창식이 제24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3연패를 위해 출격한다.

대한야구협회가 7월23일부터 8월1일까지 캐나다 선더베이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최재호 신일고 감독이 사령탑을 맡게 된 대표팀은 광주일고의 황금사자기 우승을 이끈 좌완 유창식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일고의 막강 내야를 구성하고 있는 백세웅·허일과 동성고의 내야수 강경학·와야수 문우람 그리고 화순고 외야수 정진기

도 태극마크를 달았다.

대표팀은 다음달 12일부터 20일까지 강화훈련을 한 뒤 오는 21일 현지로 출국한다.

이번 대회는 6개국씩 두 조로 나뉘어 풀리그를 벌인 뒤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할 8팀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A조 1~4위 팀과 B조 1~4위 팀이 크로스 토너먼트를 벌여 우승팀을 가린다.

한국은 쿠바, 체코, 캐나다, 파나마, 네덜란드와 함께 B조에 편성돼 24일 네덜란드와 첫 대결을 갖는다.

한편 대한야구협회는 오는 7월14

일부터 18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2010 한·미 선수권대회 선수단도 확정했다. 고려대 양승호 감독이 지휘하는 선수단에는 광주여 아시안게임 예비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중앙대 투수 김명성 등 22명이 선발됐다.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 명단

- ▲투수(7명) = 유창식(광주일고) 윤영삼(장충고) 이현호(제물포고) 최현진(충암고) 임찬규(휘문고) 이태양(정주고) 심창민(경남고) ▲포수(3명) = 유강남(서울고) 유원선(충암고) 김민욱(신일고) ▲내야수(6명) = 백세웅·허일(이상 광주일고) 강경학(동성고) 강병의(충암고) 강진성(경기고) 하주석(신일고) ▲외야수(4명) = 문우람(동성고) 정진기(화순고) 신철안(덕수고) 김호령(군산상고)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화촉

▲김준옥씨 장남 덕은(번호사) 군 최규철(조선대병원 피부과 교수)씨 차녀 나영(비아초 교사)양 = 29일(토) 오후 1시30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광주회관 3층(예식홀)

▲김 완(광주보훈병원 진료부장)·윤해경씨 장남 지하군 김병식·이돌심씨 장녀 진희양 = 29일(토) 광주무등파크호텔 4층(다이아몬드홀)

▲서석철·정남이씨 장남 영국군 박제범·이순금씨 차녀 주희양 = 30

일(일) 경복궁웨딩컨벤션 1층(경복궁홀)

▲김종배·조정업씨 차남 동욱군 강성수(혜성건설 회장)·임채현씨 차녀 주희양 = 30일(일) 낮 12시30분 호텔무등파크 4층(컨벤션홀)

무음

▲조영만씨 별세 광현·은영·은주씨 부친상 = 발인 29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심규성씨 별세 창훈(광주불교

방송 부장)·정현(나주노인복지회관)씨 부친상 = 발인 29일(토) 나주시 대호동 나주장례식장 1호실. 061-332-8114.

국가대표 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종합상조가자

기입문의 1688-3740

반대편상조 전문업체 노우원

마음까지 편안함 - 금호장례식장

☎ 227-4000

故 진영자님 (01/70세)

주/부: 대진우/유준희

영유/박승래

호실	호실 101호
발인	05월 30일
장지	영락공원

故 박택철님 (남/59세)

주: 박민규

주/부: 박안나/유재홍

호실	호실 402호
발인	05월 29일
장지	영락공원

상기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

추억의 낭만 콘서트

2010. 6. 13 ~ 15, 19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 CBS 376-4488

박민규, 김민욱, 이돌심, 하주석, 정진기, 김호령, 문우람, 유창식, 유원선, 김명성, 김형일, 차두리, 이영표, 이청용, 기성용, 박지성, 김보경, 구자철, 신형민, 김재성, 이승철, 박주영, 염기훈, 이근호, 알렉산드르 흘렙, 티모페이 칼라체프, 알렉산드르 흘렙, 티모페이 칼라체프